

#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 에너지밸리

3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이 등지를 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의 핵심은 '빛가람에너지밸리'다.

빛가람에너지밸리는 오는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분야 특화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기업 유치 작업 순조=2016년까지 한전은 100개의 기업을 빛가람에너지밸리에 유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50개사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2016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라는 목표의 77%를 달성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목표로 한 '500개 기업 유치'의 15.4%를 이미 달성한 셈이다. 이들 77개의 기업을 유치해 4261억원 투자유치, 3037명 고용효과를 거뒀다.

에너지분야 특화도시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빛가람에너지밸리 유치 업체 중 대기업은 5곳, 중견·중소기업 68곳, 외국계 기업 3개사, 연구소기업 1개 등이며 에너지 신산업 관련업체가 41개사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업체가 대거 입주함에 따라 빛가람에너지밸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

한전은 또 오는 2016년 준공 목표로 빛가람에너지밸리 센터도 지난 9월 착공,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연면적 754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는 빛가람에너지밸리센터는 연구소 설치 기업의 창업보육센터와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중소기업 육성 작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전은 중소기업 육성펀드 2000억원을 출연해 이전·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빛가람에너지밸리에서 꿈을 키울 인재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한전은 지역 산학연 R&D에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빛가람국제발명대전을 개최하며 지역 대



한전 나주 사옥



에너지밸리센터 기공식

77개 기업·4261억 투자 유치·3037명 고용 창출 효과

에너지밸리센터 올 완공... 지역인재 육성 정책적 지원

교통·생활기반 등 개선 속제... "지자체 상생 협력해야"

올해 한전이 1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면 9000여억원의 투자 33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20개 기업유치로 1785억원 투자와 659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했다.

특히 한전의 이전만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1500여명의 한전 임직원들 연봉 총액이 1163억원이고, 한전KDN과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자회사 임직원의 연봉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가 무려 2370억원이 된다. 나주시 1년 예산인 53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이 완성되면 나주는 세계적인

학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도 열 계획이다.

첨단에너지 특화사업도 진행된다. 한전은 에너지 산업에 강점이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장치(ESS)·마이크로그리드·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첨단에너지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 개선 등 속제=입주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 기업들은 난개발 문제와 클러스터 분산지연, 늦어지는 공간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애로사항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에너지밸리 추진목표

도입기('15~'16)	성장기('17~'18)	성숙기('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100개사 유치</li> <li>인재 300명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250개사 유치</li> <li>인재 600명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500개사 유치</li> <li>인재 1000명 양성</li> </ul>

### 추진과제

기업유치 및 동반성장	1 기업비용 지원 '중소기업 육성펀드' 2,000억원 출연
	2 그룹사 및 지자체 공동 '에너지밸리 센터' 구축
R&D 확대 및 인재양성	3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지원시스템' 도입
	4 지자체 기업유치 공동 활동 전개
	1 광주·전남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협력R&D 추진
	2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양성 추진
	4 빛가람 발명대전 및 동반성장 Festival 개최
	1 지역특성 연계 에너지 특화 사업
	2 미래에너지 사업 Test Bed 구축
	3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
	4 사랑나눔 빛가람 행복 Event 등 사회공헌 활동 전개

지난해 12월 16일 광주시 라마다 호텔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77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진행된 'E-valley Frontier 77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 세미나는 어려운 여건에도 에너지밸리에 투자한 기업에게 투자 감사와 성공을 기원하고, 에너지산업의 미래모습 조망과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에너지밸리로 이전한 한 입주기업 사장은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았지만 공간 조성이 늦어 공장도 세우지 못하고, 클러스터의 용도와 업종 분류도 안 돼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또 나주시내와 혁신도시간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중소기업 직원은 사택 지원이 없는 점 등 미비한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 ▲클러스터 분산지연 ▲기업직원의 임대주택 입주문제 ▲교통문제 등을 문제로 꼽았다.

조환익 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국가경제를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에너지밸리를 위해서 전남도와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힘을 합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한전과 지자체의 상생협력이 없이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성공은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투자해 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았지만 공간 조성이 늦어 공장도 세우지 못하고, 클러스터의 용도와 업종 분류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 도심과 혁신도시간 버스 배차간격도 길어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중소기업 직원은 사택 지원이 없는 점 등 미비한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현철 기획경영실장은 "빛가람에너지밸리와 광주·전남의 기존 산업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전 기업과 지역 대학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오광록기자 lion@kwangju.co.kr



에너지밸리센터 조감도



에너지밸리 연구센터 현판식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 외 임직원 일동

**호남 최초 여성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보건복지부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  
-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  
- 2015년 1월 보건복지부 "산부인과 전문병원" 재지정

- 제 1회 임신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한국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 호남유일의 유니세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재선정
-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